

아말렉 족속과의 전쟁

성경: 삼상 15장, 출 17:8-13, 갈 5:16-17, 24

- I. 사무엘기상 15장은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는 일에서 불순종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.
- A. 사울은 원수를 정복했지만, 하나님께 완전히 불순종했다 — 삼상 15:7-9.
 - B. 여기서 사울은 완전하고도 철저히 폭로되었으며, 그런 후 사울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버림받았다 — 삼상 15:14-26.
 - C. 이 장에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중요한 공과가 담겨 있다.
- II. 성경의 예표에서 아말렉 족속은 육체, 곧 타락한 사람을 상징한다 — 출 17:8-16.
- A. 아말렉 곧 육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도적인 원수이다 — 출 17:8, 신 25:17-18.
 - 1. '아말렉'이라는 이름은 '호전적'이라는 뜻이다. 이것은 육체가 호전적이고 파괴적이며 교란하는 것임을 가리킨다.
 - 2.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장 크게 파괴하는 것은 육체이다 — 벰전 2:11.
 - 3.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계속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미워하시고 육체를 근절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— 출 17:16, 갈 5:17.
 - B. 육체는 타락한 옛사람의 총체, 곧 우리의 타락한 존재 전체를 의미한다 — 창 6:3, 롬 7:18상, 갈 2:16.
 - 1. 육체는 옛사람이 살아 나타나고 표현된 것이다 — 롬 6:6.
 - 2.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,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,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다 — 롬 8:7.
 - C. 육체는 하나님의 원수의 진영이며 그의 일을 위한 가장 큰 기지(基地)이다 — 갈 5:19-21.
 - 1.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원수는 실지적으로 사탄이 아니라 육체이다 — 롬 8:7.
 - 2. 육체 곧 타락한 사람은 전적으로 사탄과 하나이고,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 — 마 16:23, 갈 5:17.
 - 3. 육체는 우리의 원수들 가운데 선봉장으로서,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끌면서 우리를 대항해 싸운다 — 롬 8:3.
 - 4. 하나님은 사탄을 미워하시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육체를 미워하시며, 사탄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육체를 멸하기를 원하신다 — 출 17:16, 신 25:17-19, 삼상 15:2-3.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5 (계속)

- D. 아말렉에게는 주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이 있다 — 출 17:16, 삼상 15:22-23.
1. 사탄이 이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, 아말렉도 하나님의 보좌를 전복하려고 했다 — 출 17:8, 16.
 2. 사탄 자신처럼 육체도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른다 — 사 14:12-14.
 - a. 육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에 맞서 반역한다.
 - b. 육체는 하나님께서 통치상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대한다.
 3.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권위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에 맞서 반역한다.
 - a. 육체는 하나님의 보좌와 행정과 계획을 거스르기 때문에 가장 추악한 것이다 — 계 4:2, 5:6, 엡 3:11.
 - b. 우리 육체의 각 방면은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원수이다.
 - c. 육체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른다. 육체는 간교한 자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게 이용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려고 할 것이다 — 고후 2:11.
- E. 육체는 왕권과 대립된다.
1. 육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수 없다.
 2. 이러한 이유로, 육체는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전에 철저히 처리되어야 한다.

III. 사무엘기상 15장 2절에서 여호와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때, 그들에게 행한 일 때문에 아말렉 족속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셨다.

- A.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도록 여행하는 중에 아말렉은 이스라엘 자손과 맞서 싸웠다 — 출 17:8-16, 삼상 15:2-3.
1.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에 묘사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,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었고, 여호수아는 선발된 남자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에 대해 싸워 그들을 패배시켰다.
 2.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다.
 3.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패배시킨 후에, 하나님은 ‘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’(출 17:16)라고 선포하셨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이 일으킨 방해물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 준다.
- B.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아말렉에 대해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.
1. 우리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싸우시는 영에 의해 아말렉에 대해 싸운다 — 롬 8:34, 히 7:25, 갈 5:17.

사무엘기상·하

메시지 5 (계속)

- a. 산꼭대기에서 손을 든 모세는 하늘들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— 출 17:9, 11.
 - b. 아말렉에 대항해 싸운 여호수아는 육체와 맞서 싸우시는 내주하시는 영의 예표이다 — 출 17:9, 13.
 - c. 우리는 싸우시는 영과 동역하기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— 골 3:1-3, 5, 롬 8:34, 13, 갈 5:24, 17.
2.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, 또한 육체를 죽음에 넘김으로써 주님과 동역해야 한다 — 눅 18:1, 살전 5:17, 롬 8:13, 갈 5:24.
- a. 기도할 때 우리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— 롬 8:34.
 - b. 육체를 죽음에 넘길 때 우리는 싸우시는 영과 하나이다 — 갈 5:17.
 - c. 한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해야 하며,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싸우시는 영에 의해 육체를 죽여야 한다 — 갈 5:24.
 - d.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었지만,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— 롬 6:6, 8:13, 갈 5:24.

IV. 하나님은 사울에게 ‘아말렉 족속을 치고’ 또한 ‘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’ 그들을 남겨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, 사울은 여호와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— 삼상 15:3-9.

- A.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죽였지만, 아각왕뿐 아니라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살진 짐승과 어린 양과 그 밖의 좋은 것은 모두 남겨 두었다 — 삼상 15:7-9.
- B. 사울과 백성이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 두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, 체험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육체, 곧 타고난 생명의 좋은 방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끝내기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묘사한다.
 1.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는 일과 그분을 의지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육체에 속한 일이다 — 빌 3:3-4.
 2. 육체의 모든 방면은 선한 방면이든 악한 방면이든 관계없이 은혜와 하나님의 왕국과 대립되며,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.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모든 방면을 반드시 미워해야 하고, 육체를 끝내는 일에 절대적이어야 한다 — 롬 8:13, 갈 3:3, 5:2-4.
- C.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울이 가장 좋은 가축을 그분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— 삼상 15:15.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5 (계속)

- 어떤 것이든 육체에서 비롯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— 삼상 15:19.
- 우리 자신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주제넘은 것이고 죄이다 — 창 4:5, 마 7:22-23.

V. 우리가 자신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경륜을 거슬러 거역하는 것이다 — 삼상 15:22-23, 출 17:16.

- 사울은 불순종함으로써,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자이자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 드러났다 — 삼상 22:17.
- 사울은 하나님께 극도로 거역적이었다. 그는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과 머리로 삼지도 않았다.
- 사울은 우상숭배만큼이나 악한 거역으로 구성된 사람이었다 — 삼상 15:23.
- 사울이 한 일은, 악한 영을 접촉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그 악한 영의 의도를 수행하는 것만큼이나 악하였다 — 삼상 15:23.
- 모든 거역은 주제넘게 행하는 것으로서 감히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다.

VI.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왕권을 잃어버렸다 — 삼상 15:26, 28.

- 만일 우리가 육체를 철저히 처리하지 않는다면, 우리도 사울과 같이 우리가 가진 왕권을 잃을 것이다 — 뱀전 2:9, 계 1:6, 5:10.
- 사울이 불순종한 사례는 하나의 경고로서,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.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며, 신실하게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, 생명 주시는 영이시자 완결되신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하나이신 주님을 따라야 한다 — 고전 15:45, 6:17, 딤후 4:22, 갈 5:16, 25.
- 아말렉이 처리될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도래한다 — 출 18:1-26.
 -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다 — 막 1:15, 요 3:3, 5, 계 11:15, 12:10, 단 2:44.
 - 육체는 왕권과 대립하기 때문에,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가 철저히 처리되어야 한다 — 고전 6:9-10, 엠 5:5.
-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체를 철저히 처리하고 영을 따라 살고 행한다면, 우리는 왕권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을 것이다 — 롬 8:4, 14:17, 갈 5:19-21, 뱀후 1:5-11.